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 추진

□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○ 금융위는 지난달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이 태스크포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□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치료에 의료비가 더 들어가는 구조이며 이를 낮출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함.

○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진료수가가 병원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에 비해 최대 15% 정도 더 높은 상황임.

○ 따라서 유사한 의료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적용되어 진료비가 더 청구되는 현상은 재고되어야 하며, 높은 진료수가 때문에 과잉진료, 장기진료로 이어지는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언급함.

- 자동차보험은 진료수가가 높아 불필요한 진료가 많고 장기입원시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경우 치료비의 체감효과가 미미해 병원이 장기입원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□ 금융위는 실무 단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부처 간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보건복지부나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있어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○ 의료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꾸준히 현실화되어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.

○ 또한, 자동차 사고환자의 치료 난이도가 높다는 점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시 병원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.

(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 추진 등, 연합뉴스 등, 11/18)